

성근 경계의 도시

금촌어울림센터

고은비, 이정민
(주)818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개요

위치	경기도 파주시 금정로45
용도	업무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3,840m ²
건축면적	1,720m ²
연면적	5,660m ²
규모	지하 2층, 지상 4층
건폐율	44.7%
용적률	88.5%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마감	세라믹 박판 타일, 화강석, 콘크리트 거친면 조성
구조설계	서울구조
기계설계	세아엔지니어링
전기설계	우림전기
토목설계	나우지오컨설턴트
조경설계	안팎
설계기간	2021.6.~2022.8.
시공기간	2022.10.~2024.6.
시공	티디(주)
건축주	경기도 파주시



금정로에서 바라본 금촌어울림센터

금정로는 폭이 좁아 건물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 수평적 흐름 속에서
경험되는 길이다. 이 같은 도시의 특수성과 어울림센터의 일상성 사이에서
허용에 대한 정도를 외부공간으로 구체화하였다. 가로 풍경을 가시화하여
평소 도시의 고요한 배경으로 존재하면서도, 급류와 같은 역동적인
오일장에 종속되지 않고 고유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위해 완결적인 볼륨으로
구성되었다.



©이윤백

문화마당을 향해 열려있는 2층 라운지 및 복도



©이윤백



©이윤백

상 금정로에서 바라본 계단광장
하 금정로에서 진입 가능한 남측 산책로



© 2015
이영호



상 2층 다목적홀과 라운지
하 계단광장에서 바라본 문화마당



© 2015
이영호



상 기존 법원동 홀
하·좌 1층 홀과 연계된 2층 주민센터
하·우 2층 다목적홀

계단광장과 건물 전면이 도시와 미묘한 경계를 형성하듯이 실내 공간 또한 물러난 테라스, 아트리움, 옥상정원 등 다양한 매개 공간을 통해 선택적·간접적으로 도시와 마주한다.



©이영복

문화마당과 2층 야생화정원 연결계단

들어가며

금촌어울림센터는 기존 등기소와 법원 건물을 활용해 금촌 구도심의 재생을 목표로 한 과주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이다.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금촌전통시장(금촌오일장)’과 인접한 이곳은 오랜 기간 지역 커뮤니티의 생활과 기억이 축적된 장소로서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며, 주민 복지를 증진하고 구도심에 문화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기존 등기소와 법원 건물은 그 쓰임과 역할을 다하여 오래된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산과 지역성 간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부지에서 과거 건물의 물리적 원형을 보존하기보다 자리하던 대지의 역사성과 20여 년간 등기소·법원으로 사용되면서 축적된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을 존중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스며드는 경계

거리는 임시 천막 아래에 펼쳐 놓은 물건과 먹거리, 오가는 사람들로 인해 역동적이며 독특한 도시 풍경으로 변화한다. 금촌오일장과 어울림센터는 서로 다른 성격과 활용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도시적 공공성을 공유하여 서로 공명한다. 부지와 맞닿아 있는 금정로의 특수성과 일상성, 차이와 공공성에 상응하는 이중적 경계면 설정이 금촌어울림센터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건축은 도시의 일부이며 전체와 닮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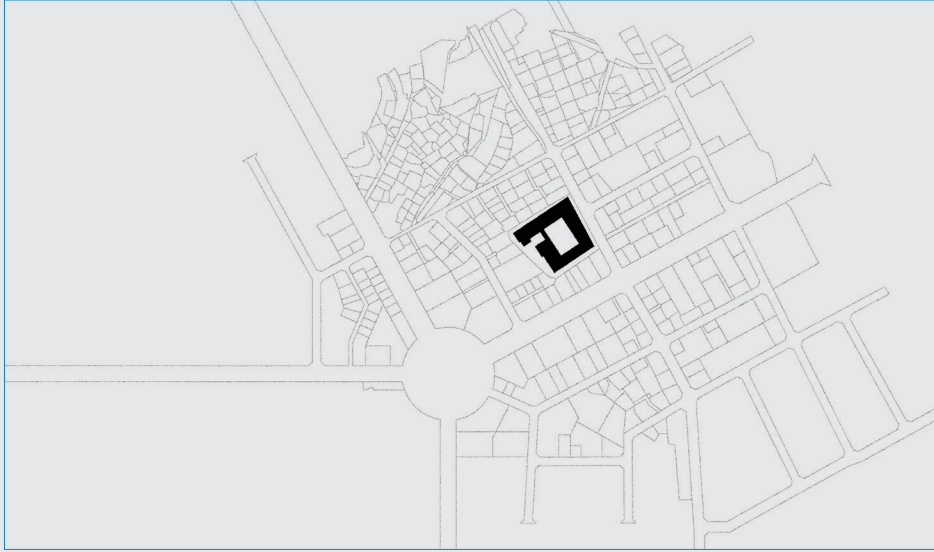
과거 부지와 건물은 전면 도로인 금정로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경계를 따라 설치된 철제 울타리와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전면 공간은 외부 방문자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주어 금정로와 배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저차로 인한 공간적 흐름은 유지하되, 그 경험이 보다 열린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접근과 해석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기존 등기소와 법원 건물이 도로변과 마주하며 갖는 2.7m의 단차를 대부분 없애 넓은 계단광장을 조성하여 금정로와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주민들의 모임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금정로의 오래된 소규모 상가와 주택이 모인 조밀한 주변과 대비되는 스케일의 팽팽한 면을 가로와 평행하게 배치하여 가로의 흐름과 공간을 드러내고, 금촌오일장의 배경이 되도록 하였다. 완전히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는 ‘성근 경계’는 상업과 주거가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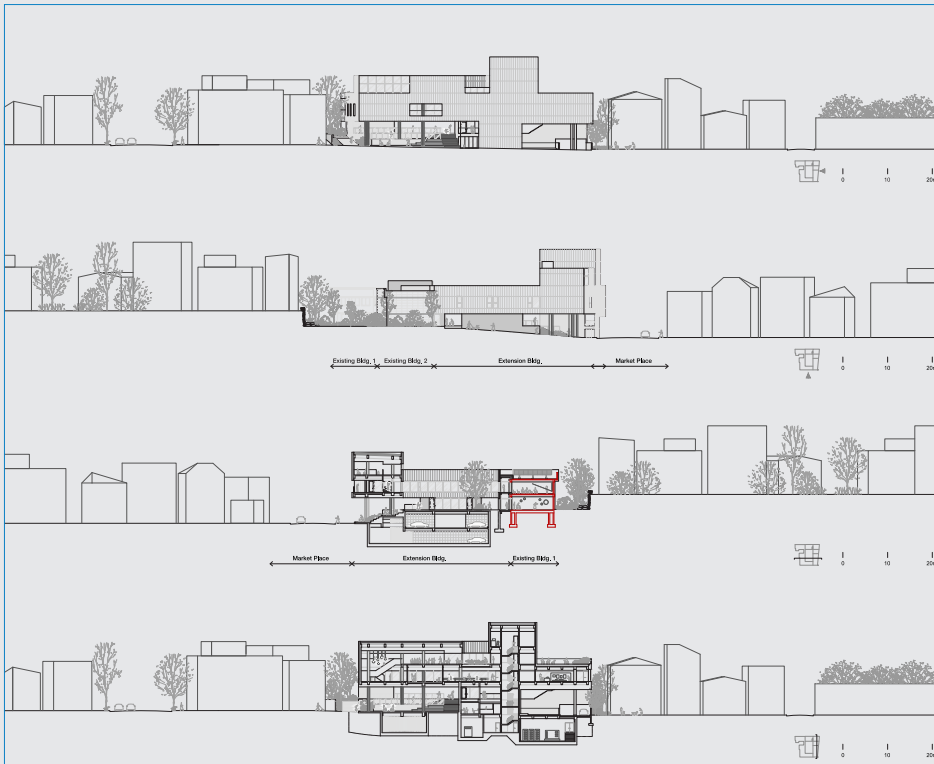
©이영복



상 금정로에서 바라본 금촌어울림센터
하 금촌의 도시구조와 금촌어울림센터



배치도



입단면도

취인 구도심의 복합적인 맥락 속에서 공공성을 확장하고 주민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장소가 된다.

의도된 병치와 공공의 고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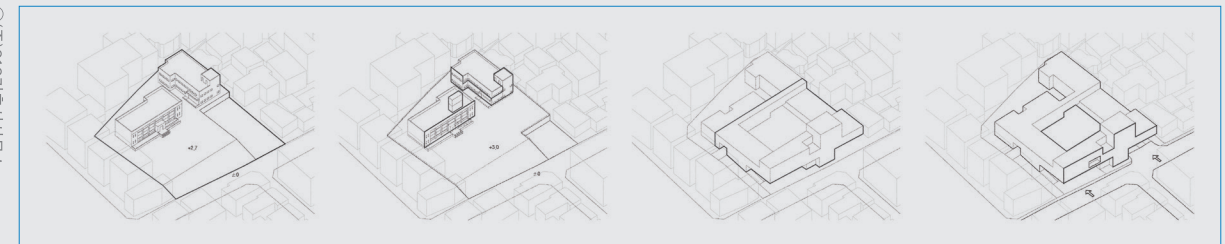
금촌에서 오일장을 제외하고 도시 조직을 논할 수 없듯이, 금촌어울림센터 역시 단순히 공공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도시 풍경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의도적인 병치를 통해 고유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강력한 도시 이벤트와 커뮤니티 시설이 ‘공공성’으로 병치되며 발생하는 충돌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

금정로는 폭이 좁아 건물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 수평적 흐름 속에서 경험되는 길이다. 이 같은 도시의 특수성과 어울림센터의 일상성 사이에서 허용에 대한 정도를 외부공간으로 구체화하였다. 가로의 풍경을 가시화하여 평소 도시의 고요한 배경으로 존재하면서도, 급류와 같은 역동적인 오일장에 종속되지 않고 고유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위해 완결적인 볼륨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대비되는 저층부는 대부분을 열어 주민의 접근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일상의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장소를 형성한다. 금촌오일장이 열리면 이용객은 계단광장에서 장터를 바라보며 가벼운 음식과 음료를 즐기고, 비가 오거나 무더울 때는 잠깐씩 걸터앉아 쉬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된다. 그렇게 마을의 고개는 마을의 정자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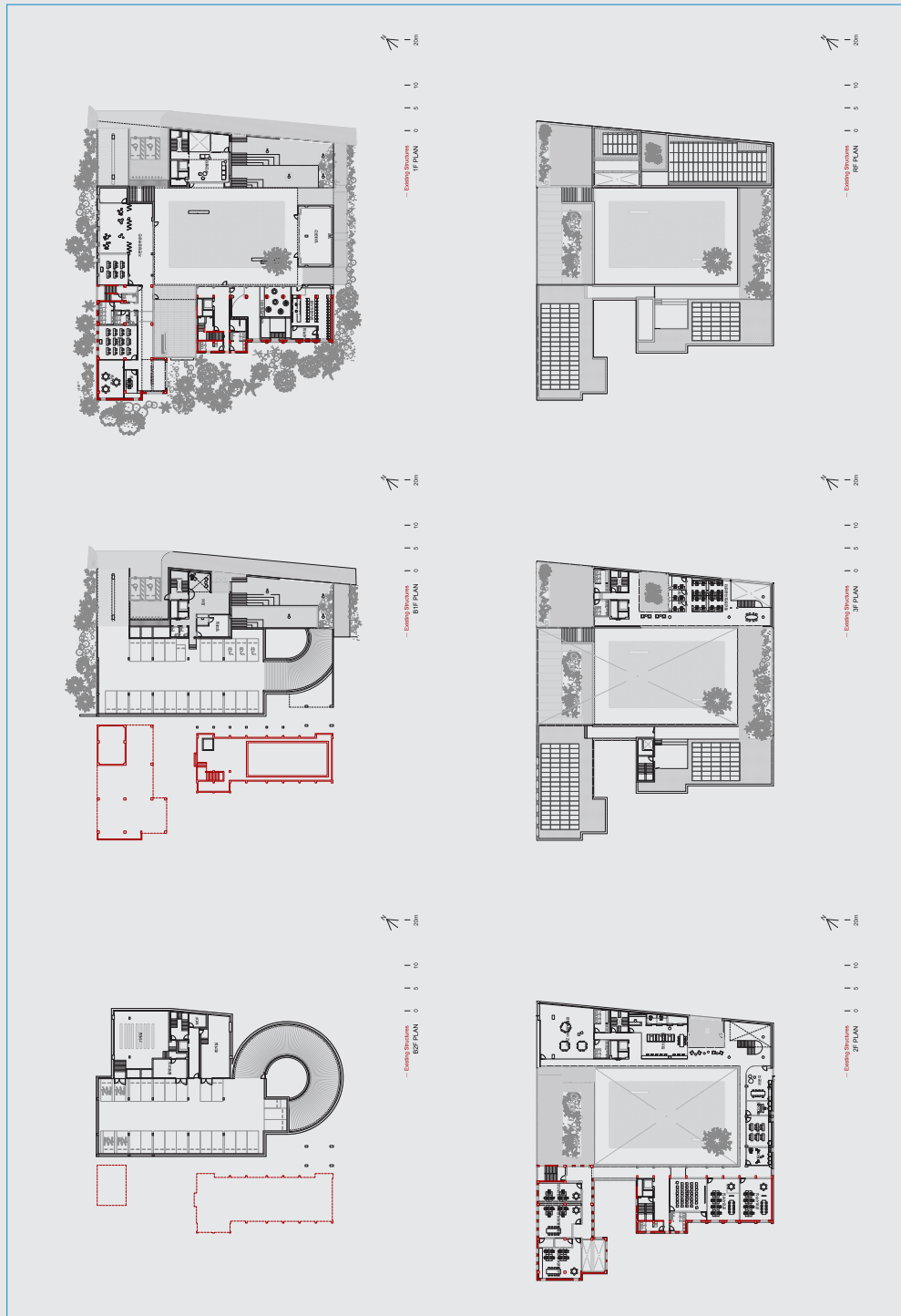
계단광장이 연계하고 머무는 장소를 제공한다면, 금정로와 골목길에서 연장되는 남측 산책로는 골목의 스케일로 확장하고 노약자와 휠체어, 아이와 유모차 등 보행 취약계층에 편리한 접근을 제공한다. 이렇게 확보한 산책로를 조정으로 감싸이게 조성하고 건물



상 금정로에서 바라본 계단광장
중 계단광장에서 바라본 문화미당
하 문화미당과 2층 야생화정원 연결계단



구성 다이어그램



평면도

의 다층적 레이어를 관통하도록 하여 방문자는 풍부한 공간을 경험하며 접근하게 된다. 사방으로 열리고 이어지는 다공질의 마당은 어울림센터의 특정 프로그램에 전용되지 않고, 도시에 일방적으로 귀속되지도 않으며, 서로 다른 이들을 허용하고 교류하게 하는 공공적 커뮤니티 장소가 된다.

도시의 마당

어울림센터의 문화마당은 도시의 구조적 관계를 공간화해 장소의 특성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공간은 필요의 정도와 쓰임의 밀도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며, 다양한 요구와 변화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기능하게 된다. 자기완결적이며 다소 폐쇄적인 중정과 달리, 마당은 타자를 허용함으로써 관계를 확장하는 공간이다. 모서리를 열고 각 코너에 동선을 배치해 공간의 흐름이 연속되도록 하여 공간이 완결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마당의 도시적 스케일에 대해 해석하고자 하였다. 계단광장과 건물 전면이 도시와 미묘한 경계를 형성하듯이 실내 공간 또한 물러난 테라스, 아트리움, 옥상정원 등 다양한 매개 공간을 통해 선택적·간접적으로 도시와 마주한다. 이러한 구성은 복합 프로그램으로 인해 단조로워질 수 있는 내부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다양한 이용 방식과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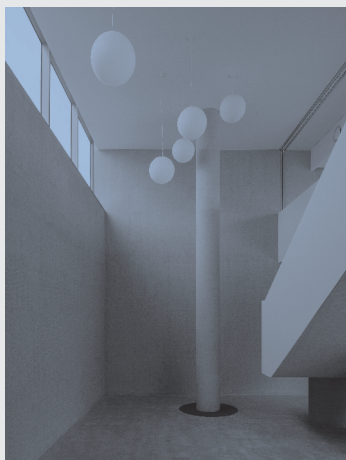
공간과 쓰임의 밀도

금촌어울림센터는 설계공모 당선 이후 민간·군 복합 커뮤니티 시설에서 도시재생시설로 프로그램의 성격과 구성이 전면 변경되었다. 영유아·어린이·청소년·청년·군인 등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교육·문화·복지·창업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7개 부서 13개 팀이 운영하는 복합시설로 이용자를 통합하고, 또 각자 활용과 관리가 가능한 공간 구성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공간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성격과 운영 방식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기존 등기소동과 법원동의 경계를 기반으로 조성된 전면 증축부는 마당의 장소성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문화마당을 중심으로 길게 이어지는 수평적 흐름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확장하며, 그 결절점에 위치한 수직형 홀과 라운지 그리고 외부 정원



상 기존 법원동 홀
중 2층 다목적홀과 라운지
하 문화마당을 향해 열려있는 2층 라운지 및 복도



상 1층 홀과 연계된 2층 주민쉼터
하 2층 다목적홀

등을 통해 공간적 변주를 의도한다. 사용자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고, 도시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물성과 공공성

다양한 이용계층의 입체적 접근과 사용이 요구되는 어울림센터는 그 스케일과 활용에 따라 재료와 디테일을 달리하였다. 이용객이 머물고 물성을 직접적으로 접하는 계단광장과 산책로 등 저층부는 거친 콘크리트면으로 조성하여 시간에 따른 질감의 변화와 촉감적 장소를 제안하였다. 건물의 전면 상부는 밀도 높은 도시에서의 중량감을 줄이고 가볍게 부유하는 물성을 위해 박판 세라믹 타일을 적용하고 이음매에 동일 색상의 'T자'형 몰딩을 설치하여 팽팽하고 가벼운 표면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물성은 저층의 거친 질감과 공간의 대비를 통해 공공의 장소를 풍성하게 구체화한다. 이는 표현을 위한 장식적 디테일보다 불필요한 요소를 덜어내는 방식을 통해 사용자가 공간의 경험과 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계단광장의 크고 작은 콘크리트 기둥의 볼륨과 위치, 디테일 또한 조정하여 공공건축이 갖기 쉬운 경직성 속에 작은 여유와 틈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는 공간 전체의 인상을 가볍게 하면서도 이용자가 느끼는 체류감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였다.

불완전함으로써 완전한 매개의 공간

금촌어울림센터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일상 그리고 미래의 변화를 이어주는 매개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높이를 활용한 계단광장과 산책로, 성근 경계와 문화마당은 도시적 맥락 속에서 열린 공공성을 만들어 내는 주요 요소들이다. 건축은 완성된 형태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무르고 이용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확장된다. 금촌어울림센터는 이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구도심이 지닌 역사와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